

고묘지 절

고묘지 절은 니시야마 정토종의 총본산입니다. 니시야마 산 기슭에 광대한 부지를 갖고 있으며, 정토종의 개조 호넨(1133~1212년)과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단풍의 명소로서도 잘 알려져 있으며, 미에도(御影堂)로 이어지는 돌계단인 '온나자카'와 산문에서 좌측으로 이어지는 약 200m의 '단풍나무 참배길'이 볼거리입니다. '단풍나무 참배길'은 약 250그루의 단풍나무가 터널을 이루어 봄과 여름에는 선명한 녹색, 가을에는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색으로 물듭니다.

역사

고묘지 절의 기원은 1198년, 호넨의 제자이며 구마가이 나오자네라는 이름의 무장이었던 승려 렌세이(1141~1207년 추정)가 넨부쓰잔마이인 절을 건립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호넨의 가르침은 무한한 광명과 생명의 부처님인 아미타불의 이름을 외는 염불의 실천을 중심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절에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1228년 호넨의 17주기 때 호넨의 석관에서 빛이 뻗어나와 넨부쓰잔마이인 절에 닿았다고 합니다. 절로 옮겨진 호넨 대사의 유해는 화장되어 경내에 안치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광명(光明)'이라는 한자를 쓴 고묘지(光明寺) 절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했습니다.

미에도·아미다도·샤카도

미에도(御影堂)는 1754년에 지어진 고묘지 절의 본당입니다. 본존은 호넨 대사의 하리코상(하리코는 종이를 반죽해 틀에 넣어 모양을 만든 공예품)으로 모친에게 받은 편지를 사용해 호넨이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미에도의 뒤편에 있는 경사가 급한 계단을 올라간 곳에 호넨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납골당이 있습니다(비공개). 호넨의 석관과 화장했던 터는 각각 아미다도(阿弥陀堂)와 샤카도(釈迦堂) 부근에 있습니다.

아미다도에는 높이 2m의 아미타여래상과 그 양쪽으로 세지보살과 관음보살의 작은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아미타여래의 손가락은 정토로 신자의 영혼을 맞이하는 인상(印相, 부처가 자신의 깨달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열 손가락으로 만드는 여러 표상)을 맺고 있습니다. 아미다도는 1799년에 지어진 것인데, 헤이안 시대(794~1185년)의 전통적인 정토교 양식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1736년에 건립된 샤카도에는 석가여래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정면에는 여러 돌이 정성스럽게 배치된 가레산스이 정원이 있고, 그중에서도 가장 큰 3개의 돌은 아미타여래, 세지보살, 관음보살을 나타내며, 다른 18개의 돌은 정토종 가르침의 기초인 아미타불의 48가지 서원 가운데 18번째 서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극

락에 왕생하기를 빌며 아미타여래의 이름을 외는 중생을 구제하고 극락정도에 왕생하게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정원 반대편에 있는 조쿠시몬 문(勅使門)은 주로 조정의 명을 전달하던 칙사(勅使)가 사용한 문입니다.